

## 한국여성과 국제결혼 이주 베트남 여성의 결혼만족도 비교 연구

이복희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잠숙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안현숙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변상해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국 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여성들의 결혼만족도와 베트남여성들의 결혼만족도를 비교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안책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결혼 1년~5년차 한국여성과 국제결혼 이민자여성 중 베트남여성이며, 2008년 4월 01일 ~ 4월 30일까지 약 30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한국여성과 베트남 여성 각각 150부씩 총 300부를 전국 이민자 여성을 교육하는 상담·교육기관과 국내·국제 결혼정보회사에 협조공문과 함께 우편으로 배포하여 회수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베트남 여성에 대한 자료수집과정에서 베트남 여성의 한글 이해 문제가 제기되어 본 연구는 결혼만족도에 관한 질문지를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동시에 사용하였다.

핵심주제어: 국제결혼, 생활만족도

\* 제1저자,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공동저자,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공동저자,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jm9004@suv.ac.kr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의 국제결혼비율은 2003년 한국사회 전체 결혼 건수에서 8.4%를 차지하였지만 2004년의 경우 11.4%까지 크게 증가하였다(통계청 2005). 특히 한국 사회의 국제결혼 유형은 최근 한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노동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사이의 국제결혼과 도시 빈민지역 이혼남성이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및 '상업화된' 결혼전문업체가 이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결혼형태가 증가하고 있다(최진영, 2004). 더욱이 이러한 결혼결과가 한국사회에 갖게 될 파급효과가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최근 들어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05)

그러나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 때문에 적응과정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나 그 동안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였고, 이들의 정착이나 적응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

다행히 최근 이들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부분적으로 밝혀내고 있는데(한국염, 2004), 이런 연구들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언어소통의 어려움에 따른 사회관계형성 및 유지, 사회활동 참여의 어려움을 비롯하여 각종 가정폭력이나 인권 유린, 경제적 어려움 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폭로하면서 정부 복지지원정책을 촉구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어떤 사회적 요청에 의한 결혼이었던 간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었고 일생을 담보로 하는 신성한 결혼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사회적 상황의 폭로는 부정적 측면에서의 또 다른 사회적 교육의 내용이었던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노동환경이나 생활조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 그들이 가정 폭력과 인권 유린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남성과 결혼해 살고 있는 한국여성들의 삶속에서도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같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그리고 인권 유린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중 최근 가장 한국결혼 순위가 높은 베트남여성과 한국여성의 결혼만족도 비교 연구를 통하여 한국남성과 결혼한 1~5년차 한국여성과 베트남여성들이 느끼는 진정한 내면의 삶까지 알고 싶어 결혼만족도 비교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 1.2 연구의 목적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사이의 국제결혼이 최근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일부 인권단체와 지역 여성단체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적응과 결혼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여성부 또한 2005년 처음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한국어 교실과 산후 도우미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도입하여 실시하였다.(여성부, 2005) 하지만 일부 인권단체와 지역 여성단체 그리고 여성부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관심과 지원사업으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도록 돕기에는 아직은 미흡한 것이 많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여성들의 결혼만족도와 베트남여성들의 결혼만족도를 비교하여 이 두 나라 여성이 모두 다 결혼만족도가 높다면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인권문제나 가정폭력의 폭로차원에서 이들 여성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 여성들이 지금도 결혼에 만족하지만 더 큰 만족도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여성과 베트남여성들 모두 결혼만족도가 낮은 결과가 나온다면 이는 한국남성들의 결혼관을 바꾸게 함으로써 두 나라 여성 모두 다 결혼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며 셋째, 한국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높고 베트남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낮다면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안책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한국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낮고 베트남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높다면 한국여성들은 베트남여성들이 자신의 결혼생활에 만족해하는 이유들을 배워나가도록 하는데 있다.

## 1.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할 경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국제결혼 이주여성 중 대표되는 표본인 베트남 여성의 결혼만족도는 이제까지 부정적 측면의 접근이었던 그들의 인권문제나 폭력문제와는 다른 긍정적 측면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 뿐만 아니라 남편, 자녀들에게 좋은 가정생활의 지침과 발전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둘째, 국제결혼 이주여성 중 베트남 여성의 결혼만족도는 다른 국적 여성들의 결혼만족도와 비교·연구되어 성공적인 결혼생활에 기여할 것이며,

셋째, 한국여성과 베트남여성의 결혼만족도 비교는 개인들의 만족, 불만을 넘어 사회, 국가 차원에서의 만족, 불만족 요인 분석을 통해 이들 여성들과 결혼한 한국남성에게도 좋은 가장으로서의 지침서 역할을 기대하게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2.1 결혼에 대한 정의

결혼이란 사회가 인정하는 절차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부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인정된 지속적인 남녀의 성적결합이며 일반적으로는 특정한 규범에 바탕을 둔 동거(同居)관계와 경제적 협력이 따르는 사회제도이다. 「혼인」은 법률 용어 또는 인류학 등의 학술 용어로 쓰이는 데 반하여 「결혼」은 연애결혼이라는 말처럼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는 행위 또는 결혼생활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주계영, 2005).

### 2.2 국제결혼

국제결혼이란 국어사전에 “국적을 달리하는 남녀가 결혼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국제결혼의 사전적 의미는 국적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결혼을 의미하나 사회학 용어나 법률용어로서는 엄밀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결국 국제결혼이란 서로 다른 종족 간에 이루어진 가족공동체를 의미하며 다른 말로는 이중문화 가정이라 부르고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2세를 혼혈인 즉 이중문화 자녀라고 부른다. 이질적인 한 문화와 또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은 출발에서부터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김민정 외, 2006)

한국 보건복지부에서는 1982년 국제결혼과 혼혈인에 대하여 그 동안 포괄적으로 정의되던 개념을 국지적인 개념으로 축소하여 정의하였다. 국제결혼이란 “해방이후 외국인(미군)과 결혼한 여성”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그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1950년 이후 미군과 한국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2세와 3세”라고 정의하였다.

### 2.3 결혼만족도의 개념

결혼생활의 만족과 행복은 결혼이라는 제도가 이 세상에 존속되어 온 이래 모든 부부들의 보편적인 관심사가 되어왔다. 결혼만족도 측정에 대한 최초의 시도는 Hamilton(1929)에 의해 행해졌으며 Terman (1938), Burgess와 Cottrell(1939)에

의해서 연구기반이 확립된 이후 꾸준히 연구가 계속되어 오고 있다.

결혼만족도의 개념화 문제는 학자에 따라 그 견해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는 만족(satisfaction)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만족에 대한 정의는 두 가지 견해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결혼만족도는 태도나 주체적인 평가라기보다 “개인이 결혼에 대해 가지는 기대와 결혼의 결과(outcome) 사이의 일치 정도라고 정의된다(Lenthall, 1977) 두 번째로 주관적으로 경험되어진 즐거움 대 즐겁지 않음(pleasure vs. displeasure), 행복 대 불행(happiness vs. unhappiness), 충족감 대 부족(contentment vs. discontentment)의 현상이라는 견해이다.

결혼만족도의 측정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에 의한 측정방법이다. 둘째는 여러 영역에 대한 만족을 추산하여 전체적인 점수를 산출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Burr et al, 1968) 따라서 결혼만족도의 측정은 결혼생활의 주요 영역을 무엇으로 선정하느냐의 문제이다.

### III. 연구방법

#### 3.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결혼 1년~5년차 한국여성과 국제결혼 이민자여성 중 베트남여성이다. 또 본 연구의 대상을 결혼 1년~5년차 주부들로 제한한 것은 최근 5년간 이 베트남 국제결혼의 증가가 가장 많은 기간이기 때문에 국제결혼 이주여성 중 베트남 여성의 결혼기간에 맞추어 한국여성의 결혼기간도 1~5년으로 제한하여 조사하였다.

#### 3.2 측정 도구

##### 3.2.1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자기 보고식 도구에 의존해서 측정하므로 표준화된 척도가 필요하다. 이 견지에서 Roach, Iraizer & Bowden(1981)의 Marital Satisfaction을 결혼만족도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5점 Likert형 척도이며 긍정적 태도의 문항과 부정적 태도의 문항으로

되었기 때문에 점수계산은 긍정적인 태도의 문항은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부여하고 부정적 태도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5점을 ‘매우 그렇다’에 1점을 부여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가 .90이므로 척도의 신뢰성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 3.3 자료의 수집절차

본 연구는 예비조사, 본조사의 순서로 실시되었다. 예비조사는 2007년 4월 2~9일에 걸쳐 본 연구에 부합되는 주부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08년 4월 1일 ~ 4월 30일까지 약 30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한국여성과 베트남 여성 각각 150부씩 총 300부를 전국 이민자 여성을 교육하는 상담·교육기관과 국내·국제 결혼정보회사에 협조공문과 함께 우편으로 배포하였으며, 15일 후에 회수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리고 베트남 여성에 대한 자료수집과정에서 베트남 여성의 한글 이해 문제가 제기되어 본 연구는 결혼만족도에 관한 질문지를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동시에 사용하였다.

## IV. 분석결과

### 4.1.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베트남 여성의 일반적인 사항, 가족사항 및 남편의 일반적 사항을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해 카이검증( $\chi^2$ )하였다. 둘째, 한국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일반적인변인(본인, 가족, 남편)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산분석(One-way ANOVA) 및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일원변량분산분석의 경우 Scheffe를 통해 사후검증 하였다. 모든 자료 처리는 SPSS.12.0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05에서 검증하였다.

### 4.2 신뢰도 검증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의 알파값을 사용하였으며, 보통 Cronbach의 알파값이 0.6 이상인 경우에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

단한다. 결혼만족도에 대한 10개의 문항 중 부정적인 5개 문항에 대해 역으로 점수를 내 평균을 내어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결혼만족도에 대한 Cronbach의 알파값이 0.856으로 나타나 연구를 수행하기에 매우 적합한 수치가 나타났다.

<표 1> 연구의 신뢰도 검증

영역	문항수	Cronbach의 알파
결혼만족도	10	.856

### 4.3 일반적인 사항

#### 4.3.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국적에 따른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한국여성은 30세 이상의 인원이 많았다면 베트남 여성들은 거의 모두 20대인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고( $\chi^2=13.4.757$ ,  $p<.001$ ), 한국여성은 베트남여성에게 비해 교육수준( $\chi^2=172.982$ ,  $p<.001$ ), 직업보유비율( $\chi^2=9.251$ ,  $p<.01$ ), 그리고 소득수준도( $\chi^2=29.199$ ,  $p<.001$ ) 베트남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4.3.2. 가족특성 일반적 사항

국적에 따른 가족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유형( $\chi^2=57.016$ ,  $p<.001$ )과 자녀수( $\chi^2=23.190$ ,  $p<.001$ )에 있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베트남여성이 한국여성에게 비해 확대가족의 형태가 더 많았으며 자녀가 없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4.3.3.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국적에 따른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 $\chi^2=80.171$ ,  $p<.001$ )과 학력( $\chi^2=154.346$ ,  $p<.001$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한국여성 남편의 경우는 대부분 대졸이상의 학력인 반면에 베트남여성의 남편은 고졸이거나 아

니면 남편의 학력을 모르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직업( $\chi^2=47.341$ ,  $p<.001$ )과 소득( $\chi^2=53.400$ ,  $p<.001$ )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한국여성의 남편의 경우 소득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4. 국적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

<표 2> 국적에 따른 결혼만족도

문항	한국여성		베트남 여성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금까지의 나의 결혼생활은 성공적이었다.	3.82	1.015	3.32	1.206	3.453 * (.001)
나는 결혼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스럽다.	2.75	1.072	2.22	1.093	-3.679 ** (.000)
나의 결혼생활은 다른 어떤 일보다 나 자신에게 더 큰 만족감을 준다.	3.48	1.060	2.83	1.279	4.247 ** (.000)
남편은 나를 매우 당황하게하고 신경질 나게 만든다.	2.31	1.206	2.04	1.137	-1.733 (.084)
나의 결혼생활은 생각했던 것만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3.54	1.135	3.17	1.112	2.516 * (.013)
나는 가끔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다.	2.44	1.321	1.76	1.133	-4.142 ** (.000)
나는 남편을 신뢰하기 어렵다.	2.12	1.370	2.64	1.249	2.949 * (.004)
시간이 갈수록 나의 결혼생활은 더 만족스러워 질 것이다.	3.95	1.010	3.39	1.118	4.009 ** (.000)
나는 결혼생활을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일에 지쳤다.	1.98	1.135	1.89	1.191	-.556 (.579)
나는 남편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	4.11	1.010	3.74	1.107	2.673 * (.008)
결혼만족도	3.73	.870	3.58	.611	1.379 (.169)

\* $p<.05$ , \*\* $p<.01$ , \*\*\* $p<.001$

각각의 세부문항별로 결혼만족도를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나의 결혼생활은 성공적이었다’ ( $t=3.453$ ,  $p<.01$ ), ‘나는 결혼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스럽다’ ( $t=-3.679$ ,  $p<.001$ ), ‘나의 결혼생활은 다른 어떤 일보다 나 자신에게 더 큰 만족감을 준다’ ( $t=4.247$ ,  $p<.001$ ), ‘나는 결혼생활은 생각했던 것만큼 행복하다

고 생각한다.’ ( $t=2.516, p<.05$ ), 나는 가끔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다’ ( $t=-4.142, p<.001$ ), ‘나는 남편을 신뢰하기 어렵다’ ( $t=2.949, p<.01$ ), ‘시간이 갈수록 나의 결혼생활은 더 만족스러워질 것이다’ ( $t=4.009, p<.001$ ), ‘나는 남편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 ( $t=2.673, p<.01$ )의 문항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3> 결혼에 대한 행복, 불행의 이유

구분	문항	빈도	퍼센트	
한국여성	행복 이유	서로 신뢰, 배려, 이해 등 정서적 공감	55	65.5
		자녀로 인한 행복	11	13.1
		남편이 잘해줌, 육아 등의 도움	13	15.5
		기타	5	6.0
		전체	84	100.0
	불행한 이유	성격 및 환경차이	5	19.2
		시댁과의 갈등	7	26.9
		자녀양육 및 집안문제	3	11.5
		기타	11	42.3
		전체	26	100.0
베트남여성	행복 이유	행복하다	58	71.6
		남편이 잘해줘서	18	22.2
		기타	5	6.2
		전체	81	100.0
	불행한 이유	나를 안 믿어줌	4	23.5
		기타	13	76.5
		전체	17	100.0

위의 10가지 문항에 대한 전반적인 결혼만족도를 살펴보면 한국여성 평균 3.73, 베트남여성 평균 3.58을 나타내 모두 결혼만족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성이 조금 더 높긴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한국 여성과 베트남여성이 느끼는 결혼만족도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혼에 대한 행복과 불행의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여성의 경우는 전체 84명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서로의 신뢰나 배려, 이해 등의 정서적인 공감’ 이 65.5%로 가장 높았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26명은 기타의 이유가 42.3%로 가장 높았다.

베트남여성에게 있어 전체 81명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행복하다는 응답이 71.6%이었으며, 불행하다고 응답한 17명에 있어서는 ‘나를 안 믿어줌’ 이 23.5%로 가장 많이 나왔다.

#### 4.5 일반적인 사항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

##### 4.5.1. 본인의 직업유무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

본인의 직업유무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무직인 경우 평균 3.65,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 3.70으로 나타나 직업이 있는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직업유무에 따른 결혼만족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직업유무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표 4> 직업 유무에 따른 결혼만족도

직업 유무	전체			한국여성			베트남여성		
	평균	표준 편차	t(p)	평균	표준 편차	t(p)	평균	표준 편차	t(p)
무직(주부)	3.65	.709	-.436 (.664)	3.74	.777	.187 (.852)	3.57	.628	-.735 (.464)
직업 있음	3.70	.910		3.71	1.027		3.68	.530	

##### 4.5.2. 가족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가족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핵가족 평균 3.71, 확대가족 평균 3.60으로 나타나 핵가족의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다. 확대가족보다 핵가족에서 결혼만족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가

족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가족유형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표 5> 가족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가족 유형	전체			한국여성			베트남여성		
	평균	표준 편차	t(p)	평균	표준 편차	t(p)	평균	표준 편차	t(p)
핵가족	3.71	.814	.966 (.335)	3.74	.881	.614 (.541)	3.65	.630	.332 (.741)
확대가족	3.60	.601		3.56	.721		3.61	.583	

#### 4.5.3. 자녀수에 따른 결혼만족도

자녀수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자녀가 없는 경우 평균 3.84, 1명 평균 3.64, 2명 이상 평균 3.58로 나타나 자녀수가 늘어갈수록 평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자녀수에 따른 결혼만족도에 있어 자녀가 늘어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아 자녀수에 따른 결혼만족도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6> 자녀수에 따른 결혼만족도

자녀 수	전체			한국여성			베트남여성		
	평균	표준 편차	F(p)	평균	표준 편차	F(p)	평균	표준 편차	F(p)
자녀 없음	3.84	.703	1.657 (.193)	4.12	.670	2.129 (.123)	3.70	.686	.684 (.507)
1명	3.64	.772		3.72	.903		3.55	.580	
2명 이상	3.58	.780		3.60	.852		3.51	.589	

#### 4.5.4. 남편학력에 따른 결혼만족도

남편의 학력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남편의 학력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를 나타내(F=5.272, p<.01), 남편학력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를 통한 사후검증의 결과 대졸 이상의 경우에 중졸 이하보다 결혼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남편학력에 따른 결혼만족도

남편학력	전체			한국여성			베트남여성		
	평균	표준 편차	F(p)	평균	표준 편차	F(p)	평균	표준 편차	F(p)
중졸 이하	3.27 b	.857	5.272 * (.006)	1.40		6.241 * (.003)	3.37	.749	3.124 (.050)
고졸	3.58 ab	.677		3.36	.803		3.65	.615	
대졸 이상	3.83 a	.835		3.81	.841		4.16	.643	

\* :p<.01, Scheffe Test: a>b

#### 4.5.5 남편소득에 따른 결혼만족도

남편의 소득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200만원 미만이 평균 3.57, '00-300만원 미만이 평균 3.69, 300만원 이상이 평균 3.86으로 나타나 소득이 늘어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남편의 소득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남편의 소득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8> 남편소득에 따른 결혼만족도

남편소득	전체			한국여성			베트남여성		
	평균	표준 편차	F(p)	평균	표준 편차	F(p)	평균	표준 편차	F(p)
200만원 미만	3.57	.801	2.254 (.107)	3.50	.955	2.686 (.072)	3.63	.680	.409 (.666)
200-300만원	3.69	.747		3.69	.861		3.68	.460	
300만원 이상	3.86	.797		3.94	.774		3.46	.834	

## V. 결론 및 제언

### 5.1 결론

많은 사람들은 국제결혼 이민자 여성들이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도 매스컴이나 여성단체들이 발표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민자 여성들이 결

혼만족도가 낮은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그 표본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이 한국남성과 결혼한 베트남여성을 표본 집단으로 삼았다. 결과는 참 흥미로웠다. 한국여성들은 베트남여성들보다 10문항 중 7개 문항에서 전반적으로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그렇다고 베트남여성의 결혼만족도가 한국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비해서 결코 낮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전체적인 결혼만족도에 있어서는 한국여성과 베트남여성 간에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여성과 베트남여성들 간의 결혼만족도 비교에는 베트남 여성들 역시 한국여성들과 별 차이 없이 모두 다 자신들의 결혼에 만족하며 잘 살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국제결혼이 시장을 통한 매매혼적 결혼의 모양을 띄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결혼은 화려한 결혼은 아닐지라도 국내결혼 비용은 국제결혼 총 비용의 5배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국내결혼에 들어가는 비용은 외국에서 아내를 데리고 오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국제결혼이 우리보다 소득이 낮은 나라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매매혼적 결혼이라는 교육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국제결혼과 국제결혼 전문회사의 등장은 농촌총각의 결혼지연 등으로 수요의 필요에 의한 시대적·사회적 요청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2000년 이후부터 선우나 듀오의 결혼정보회사에 의한 성혼이 젊은이들 사이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는 점이다. 국내·국외 모두 결혼 전문의 회사를 통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만남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같은 원리이기 때문이다.

## 5.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우리는 더 이상 부정적 측면에서의 교육을 멈추어야 한다. 물론 사회복지 측면에서 더 잘 살기 위한 정책의 노력이나 프로그램의 개발 등은 멈추지 말고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의 이유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는 이유가 꼭 인권 유린이나 매매혼·가정폭력 때문에 지원되어야 하는가? 라는 점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번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볼 때 베트남여성들은 결혼이라는 합법의 절차를 통한 한 남자의 아내로서 가정을 지키고, 가꾸고, 발전시키는 주최자로서 자신의 몫을 찾고 있고,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국제결혼 이민자여성들도 한국여성들처럼 충분히 결혼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며 충분히 행복해 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더

잘 살기 위한 정책의 제안이나 입법의 도입, 그리고 그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좋은 프로그램 개발이 많이 활성화되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자여성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잘못된 편견을 버리는 것은 이제 막 태어나 이 나라에서 자라고 있는 2세들의 안전한 정착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 5.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연구의 일반화에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과정상 결혼만족도의 대상을 베트남 여성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이다. 더욱이 지역별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전국에 있는 국제결혼 전문회사를 통하여 표본 추출하였다.

둘째, 결혼만족도 비교가 국제결혼 여성인 베트남 여성이기 때문에 결혼만족도 문항 수를 최소화하여 받았다는 점이다. 이들 여성들은 아직 결혼의 연수가 짧기 때문에 한글을 쓰고 읽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한글을 이해하는 측면에서도 아직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 참 고 문 헌

- 김민정 외(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한국문화인류학』, Vol.39, No.1, pp.159-193.
- 문화옥(2006), 『한국여성과 베트남여성의 결혼만족도 비교연구』, 호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태온(1982), 『도시주부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란(1993), 『주부의 자아실현성과 의사결정유형 및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옥진(1982),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련된 가정환경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성옥(1987), 『결혼만족도와 자아개념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계영(2005), 『결혼과 가정』, 크리스찬 카운슬링.
- 최진영(2003), "국내거주 이주여성의 삶 들여다보기, 내다보기", 『이주여성인권센터 심포지엄』, pp.34-36.
- 한국염(2004),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인권센터 3주년 기념심포지엄』, pp.31-33.
- 홍보선(1994), 『부부 간 의사소통 효율성 및 의사결정 유형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성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과 출산도우미 지원사업", 보도자료.
- 통계청(2005), 2005년 인구동태조사.
- 통계청(2006),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여성 통계(<http://kosis.nso.go.kr>).
- Lenthall, G.(1977),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Counseling*, Vol.3, No.4, pp.25-32.
- Burr, W. R., Hill, R., Nye, F. I. and Reiss, I. I.(1979),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i)*, New York NY:The Free Press.
- Hawkins, J. I.(1968), "Association between Companionship, Hosti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0, No.4, pp.647-650.
- Hays, M. P. and Stinnett, N.(1971), "Life Satisfaction of Middle Aged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63, No.9, pp.669-674

## A Study on Comparison of Marital Satisfaction Between Korean Women and Vietnamese Immigrant Women in an Interracial Marriage

Lee, Bok Hee\* · Lee, Jam Sook\*\* · Ahn, Hyun Sook\*\*\* · Byun, Sang Hae\*\*\*\*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marital satisfaction between Korean women and Vietnamese women and to identify ways in which marital satisfaction of immigrant women in an interracial marriage can be enhanced.

Subjects of this study are Korean married women and Vietnamese immigrant women in a interracial marriage who have been married for 1-5 years, and they study was conducted for 30 days, from April 1, 2008 - April 30, 2008.

A total of 3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150 for Korean women and 150 for Vietnamese immigrant women, and they were distributed my mail with a letter requesting cooperation to agencies all over Korea that educate and consult immigrant women as well as international marriage information offices. Because a concern of Vietnamese women not being able to understand Korean was noted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data, a questionnaire for marital satisfaction that was translated to the Vietnamese language was also used.

*Keywords: Interracial Marriage, Life Satisfaction*

---

\* Professor, Kwangwoon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and Social Welfare

\*\* Ph.D. course, Seoul University of Venturing & Information

\*\*\* Ph.D. course, Seoul University of Venturing & Information

\*\*\*\*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Counseling, Seoul University of Venturing & Information, jm9004@suv.ac.kr